

육체의 경계 지우기: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의 패러디와 자기서사

김수연*

<차 례>

1. 시작하며: 조선후기 상상력의 위계와 차별
2. 발칙한 패러디와 치열한 자기서사 사이: <임상국부자삼취기>의 두 시선
3. 몸 섞기를 통한 육체의 차이 지우기: 반화반이(半華半夷)와 반이반적(半夷半狄)
4. 마치며: 원나라 계열 향화인의 자기서사 구축 가능성

〈국문초록〉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상력에도 위계와 차별이 존재한다. 어떤 것은 상상 자체가 금기시 되는 것도 있다. 조선시대에 금기시된 상상력 중 하나는 개를 조상으로 삼는 수조신화(獸祖神話)이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나온 한문소설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개와 관계를 맺어 태어난 인물이 조선 명문가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조합형 구조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고대 신화부터 조선후기 가문소설까지 다양한 유형의 화소를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경을 넘어 이민족과 혼인을 하는 월경(越境) 화소, 사람과 동물이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인수교혼(人獸交婚) 화소이다. 이 작품은 일종의 패러디 서사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는 기존의 화소를 패러디 하며 독자들이 낯설게 여기도록 변주를 시도했다. 월경 화소의 경우 이전 작품과 달리 중국의 사신과 조선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들이 중국 명문가의 후계자가 되게 하였고, 인수교혼 화소의 경우는 설화에서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암컷 개를 주인공 남성의 배우자로 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정하여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조선 명문가의 시조가 되게 했다. 이러한 패러디의 공통점은 ‘몸 섞기’이다. 중국과 조선, 인간과 동물이 몸을 섞은 결과로 태어난 인물이 가문을 이어간다는 상상은 문명과 야만, 중화와동이, 인간과 동물, 소중화와 오랑캐라는 육체의 구분과 차이를 해체하는 은유로 읽을 수 있다. 패러디를 통한 몸 섞기는 금기의 파괴로서, 독자에게는 발칙한 상상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럼에도 작가가 이러한 작품을 창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가층이 원나라 계열 향화인과 같은, 육체의 위계에서 차별과 금기의 대상이 되는 ‘경계적 몸’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작품의 패러디는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육체를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적 몸’을 사회에 허용되는 육체로 서사화하려는 자기서사 구축의 노력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 인수교혼, 패러디, 자기서사, 향화인

1. 시작하며: 조선후기 상상력의 위계와 차별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은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고 침해받지 않는 절대적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질적 생활뿐 아니라, 정신적 활동에서도 사람들은 외부 규율에 지배를 받는다. 기성 세대는 종종 젊은 세대에게 ‘그런 것은 꿈도 꾸지마라’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은 한 시대와 사회에 금지되는 생각과 상상이 있음을 나타낸다. 달리 말하면, 특정한 생각과 상상에 대한 ‘그 시대와 사회의 금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금기되는 ‘특정한 상상력’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그 시대의 중심 문화와 권력이다. 문화와 권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상상력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중심 문화와 권력이 인정한 범위 내의 상상력 안에도 위계와 차별이 존재한다. 정운채는 문화라는 권력 체계의 변화가 상상력의 금기와 허용의

체계 변화를 수반한다고 했다.¹⁾ 문화가 바뀌면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바뀐 권력의 체계로 인해 이전에 허용되었던 것이 금기가 되거나 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시대마다 허용되는 상상력의 범주가 달라지고, 허용되는 정도에 따라 상상력 안에도 위계와 차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계와 차별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서양의 문화 권력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동양의 상상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형편이다. 정재서가 지적했듯, 오늘날 사람들은 몇 천 년간 공존했던 『산해경』 속 ‘인어아저씨’에 대한 상상을 20세기 서양에서 들어온 ‘인어아가씨’에 대한 상상보다 열등하다고 느낀다.²⁾ 마찬가지로 고대 동양신화의 소머리 인간인 염제(炎帝)가 지녔던 신성(神性)은 사라지고, 서양신화의 소머리 인간 미노타우로스가 지닌 괴물성(怪物性)이 반인반수에 대한 인상을 지배한다.³⁾

문학 작품에 구현된 상상력에서 우리는 그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되던 시기에 존재했던 문화적 위계와 차별적 시선을 읽어낼 수 있다. 문학은 상상력을 규율하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경쟁하는 장’이기 때문이다.⁴⁾ 대표적인 사례가 이류교혼(異類交婚)에 대한 상상력이다. 이류교혼은 신화시대부터 존재했던, 동양 서사문학의 대표적 모티프이다. 이류교혼은 인간과 ‘인간 외의 다른 중’ 사이의 혼인관계를 의미한다. 이류교혼은 ‘이류’의 종류에 따라 명혼(冥婚)과 인신교혼(人神交婚) 그리고 이물교혼(異物交婚)으로 나눌 수 있다. 명혼은 인간이 명계의 존재와 혼인관계를 맺는 것으로, 전기(傳奇)의 대표적 화소이다.⁵⁾ 인신교혼은 인간과

1) 정운채, 『<춘향가>에 나타난 두 권력과 그 문화론적 의미』, 『문학치료학의 작품론』, 문학과치료, 2015, 271~273쪽(원문은 『교육논총』 33, 건국대 교육대학원, 2000).

2) ‘인어 아저씨’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낯설고 어색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3) 정재서, 『이야기 동양신화』, 김영사, 2010, 6~11쪽.

4) 정운채, 앞의 논문, 2쪽.

신의 결합으로, 지괴(志怪)에 자주 등장하며 명혼의 이전 형태라고 이야기된다.⁶⁾ 이물교혼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맺음을 의미하는데,⁷⁾ 대부분의 이물은 동물로 상상된다. 이중 문학적 상상력의 위계와 차별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이물교혼 서사이다. 인간과 교혼관계를 맺는 동물 중 상상이 너그럽게 수용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물에 대한 상상의 영역을 당시의 문화와 권력이 규율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인간의 교혼 대상으로 허용되는 ‘이물’은 주로 신이한 동물이다.⁸⁾ 신이한 동물과 인간의 교혼은 대개 자손의 출산으로 이어진다. 이때 태어난 자손은 위대한 인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 자손이 ‘신이한 동물로 상징되는 초자연적인 힘과 연결된 존재’⁹⁾라는 믿음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이물교혼이 신성혼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물교혼은 신화시대가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서사의 핵심 화소로 수용된다. 특히 국가나 가문의 시조설화에서는 이물교혼이 중요한 모티프로 활용된다.¹⁰⁾ 이물교혼을 핵심서사로 삼은 시조설화를 특별히 수조(獸祖)설화라고 부른다. 한국형 수조설화에 등장하는 신이한 동물로는 상상의 동물인 용이 대표적

5) 박일용,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에 나타난 애정모티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35, 2001, 193~233쪽.

6) 김수연, 「도장과 고소설의 여성인물 상상력」, 『고전여성문학연구』 30, 2015, 33~63쪽.

7) 강진옥은 구전설화를 대상으로 “인간과 비인간계 존재가 성적인 접촉을 매개로 관계 맺는 모티프를 수용한 설화”를 이물교혼 설화로 정의한 바 있다. 강진옥, 「구전설화 이물교혼 모티브 연구」, 『이화어문논집』 11, 1990, 173쪽.

8) 여기서 동물은 포유류는 물론 파충류와 어류도 포함한다.

9) 강진옥, 앞의 논문, 176쪽.

10) 시조신화뿐 아니라 인물과 사건의 신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이물교혼 모티프를 사용한다. 여우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강감찬 설화와 김현과 호녀의 관계를 그린 <김현감호>가 대표적이다.

이며(<작제전 설화>), 실재하는 동물 중에서는 곰(<단군신화>의 웅녀)과 구렁이(<견훤 설화>), 그리고 잉어(<어씨 설화>)¹¹⁾ 등이 있다. 이들 동물에 대한 상상은 전통시대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허용되었던 것이다.

반대로 한국형 수조설화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동물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이다. 개가 등장하는 이물교혼 서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경우 ‘개’와 인간의 교혼은 부정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대표적인 것인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한 ‘남편 행세한 개’ 유형의 이야기들이다.¹²⁾ 이들 서사에서 인간과 교혼한 개는 대부분 죽임을 당한다. 무엇보다 인간과 개의 교혼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손의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임석재 전집』에는 개와 인간이 교혼하여 자손을 낳는 이야기가 실려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위대한 자손의 탄생담이 아니라 ‘오랑개’의 시조를 조롱하기 위한 이야기이다.¹³⁾ 이러한 서사 상황은 개와 인간의 교혼을 신성혼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숙향전>의 삼살개처럼 ‘개’ 자체의 신이성과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작품도 있지만, 이물교혼 서사에서는 ‘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개’를 인간의 교혼 대상으로 상상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당시 정황을 반영한다. 한국의 수조설화에서 인간과 교혼하여

11) 물고기가 몸을 스치고 간 뒤 태어난 아이를 시조로 삼았기에 어(魚)라는 성을 부여받았다는 설화가 있다. 강진옥, 앞의 논문, 179쪽.

12)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326~327쪽, 별교읍 설화87, <개와 동침한 여자>; 1~7, 736~737쪽, 양도면 설화18, <탈개 버전>; 6~5, 140~141쪽, 삼산면 설화12, <남편 행세한 개>; 5~1, 227~229쪽, 이백면 설화20, <개의 질투>. 이들의 공통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어떤 여자가 남편 없는 사이에 개와 상관을 했는데, 개에게 버선을 씌워서 어깨에 발톱이 스치지 않도록 하였다. 그것을 알아챈 시아버지가 개를 죽이려고 순사에게 신고하였다. 순사는 총으로 개를 죽였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쫓아냈다. 나중에 여자는 아이를 낳았는데 반은 사람이고 반은 개였다. 여자의 어깨에 개 발자국이 남은 것 때문에 개와 동침한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 정운채, 강미정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설화편, 문학과치료, 2009.

13) 임석재, 『임석재 전집4-함경북도편』, <오랑개>, 평민사, 1987.

위대한 자손을 낳는 신성한 개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조선후기 이물교혼 상상력의 위계 질서 속에서 ‘개’는 금기와 차별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개’를 조상으로 삼아, 위대한 자손을 낳는 시조설화가 존재한다. 18세기 이후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문소설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가 그것이다. 이 작품은 인간과 개가 교혼하여 뛰어난 자손을 낳고, 그 인물이 조선 명문 중 하나인 임씨(任氏) 가문의 시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선행 연구는 <임상국부자삼취기>에 나타나는 인간과 개의 교혼을 “가문의 시조에 관한 신화적 서사”로 보고, 작품이 이러한 서사를 차용한 것은 “계급질서가 무너진 조선후기에 신분상승을 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의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작품이 “임씨를 자신들의 성으로 받아들인 하층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작한 가문일대기적 소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⁴⁾ 임씨의 후손이 자기 가문을 높이기 위해 이물교혼을 차용했다는 추정은 대개의 이물교혼이 신성혼의 성격을 지닌다는 전제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개’를 시조로 삼는 상상력이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조선후기의 정황을 고려하면, 이 작품이 차용한 개와 인간의 교혼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문의 신성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씨(趙氏)나 어씨(魚氏) 설화의 용이나 잉어처럼, 당시에 허용되는 이물을 차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작가도 자신이 사는 사회에서 인간과 개의 교혼에 대해 차별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주인공 임자명이 직접 자신과 개의 교혼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비웃을

14) 조재현, 「<임상국부자삼취기> 연구-시조설화적 서사구성과 다문화가정을 통한 가문계승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0, 269쪽.

것”¹⁵⁾이라고 걱정하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가는 금기를 깨고 차별에 도전하며, 인간과 개의 교혼을 상상하고 서사화했다. 왜 그랬을까? 인간과 개의 교혼을 시조설화로 차용할 수밖에 없는 내막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의 내막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이 글은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창작 배경을 완벽하게 규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금기된 상상을 공식적 언어인 한자로 서사화해야만 했던 추정 가능한 정황을, 작품이 구축한 서사의 성격을 통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2. 발칙한 패러디와 치열한 자기서사 사이

: <임상국부자삼취기>의 두 시선

U.C. 버클리 동아시아 도서관(C.V.Starr East Asian Library)에 소장된 한문소설 <임상국부자삼취기>(소장번호 5973.492461)는¹⁶⁾ 명나라 3대 영락제(재위: 1402-1424)의 치세를 배경으로 임홍(任弘)-임자명(任子明)-임산추(任山秋)로 이어지는 3대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분량은 86면으로 중편에 해당한다.¹⁷⁾ 표제는 ‘任相國三娶記 單’으로 되어 있고, 권수제는 ‘任相國父子三娶記’로 적혀있다. 이 작품을 처음 소개한 조재현의 말대로 이 작품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 세 번의 결혼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가고” 있다.¹⁸⁾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제1대 임홍은 3명의

15) 버클리본 <임상국부자삼취기>, 80쪽, “此說傳播於世上, 則必貽萬世之笑矣.”

16) 이 작품은 버클리 도서관 담당자가 1950년대 이후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 중 하나이다. 고대민족문화연구회 편,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수집 한국고전전목록』, 『간행사』, 2009, 보고사, 3쪽.

17) 한 면에 10행, 한 행에 20자 분량이 필사되어 있다.

부인 요씨(姚氏), 주씨(周氏), 설씨(薛氏)를 두지만, 서사 전개에 의미를 지닌 혼인은 집안을 이을 자손을 둔 주운화와의 혼사뿐이다. 요씨는 요절하고, 설씨는 보조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¹⁹⁾ 2대 임자명도 3명의 부인 위씨(魏氏), 정씨(鄭氏), 경씨(慶氏)을 두지만, 그 외에 1명의 시첩 위자란(魏紫蘭)이 있고 또 하나의 수첩(獸妾)이 있다. 그리고 서사의 핵심은 삼취(三娶)에 포함하지 않는 수첩(獸妾)과의 교혼에 놓여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임산추가 임자명의 서사적 비중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²⁰⁾

이 작품은 조합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 모자이크 구성이라고도 하는 조합형 창작방식은 18세기 후반부터 등장하여 19세기에 성행했다. 이 작품의 큰 틀은 건국신화와 삼대록계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대기 구조와²¹⁾ 가정 및 가문소설의 중심 화소인 일부다처형 결연구조이다. 건국신화와 가문소설의 구조적 결합은 한 집안의 기반을 구축하고 세력 확장을 추구한다 점에서 하나의 가문서사로 통합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구조를 차용해 만든 이 작품의 가문서사는 단조롭다. 반복되는 임홍과 임자명의 서사에서 두드러진 부자갈등이나 첨예한 혼사쟁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홍의 부인들과 임자명의 처첩들은 <구운몽>의 8부인처럼 자매애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면서 8부인과 같은 입체적 인물형상은 부족하다. 임홍의 부인들은 독자인 임자명을 길러 가문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고,²²⁾

18) 조재현, 앞의 논문, 252쪽.

19) 설씨는 조선에 있는 주씨에게 임홍의 부고와 유고시(遺稿詩)를 전해주어 주씨 모자가 중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주씨와 자매처럼 지내며 주씨의 아들 임자명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20) 세 부인이 낳은 원(元) 자 항렬의 아들들은 특별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주변인물로 기능한다.

21) 조현설은 건국신화의 3대기 구조를 파견자-중계자-실현자라는 3기능 체계로 설명했다.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22) 제1부인 요씨는 요절하고, 제3부인 설씨는 주운화를 청해 중국에 오게 하여 자매처럼

임자명의 처첩들도 자손의 수를 늘려 가문을 확장했다는 데 기여할 뿐이다.

그러나 작품은 이러한 단조로움을 또 다른 서사들의 차용을 통해 깨뜨려간다. 그 첫 번째가 월경(越境) 서사의 차용이다. 월경(越境)은 국경을 넘는다는 의미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작가는 형식적으로 나열한 듯한 혼인 관계들 속에, 일반적 가문소설에서 보기 드문 혼인관계를 제시한다. 1대 혼인서사의 핵심이 되는 임홍과 주운화를 명나라 사신과 조선 관리의 딸로 설정한 것이다. 명나라 제3대 영락제 연간에 우승상 임홍은 자원하여 국경을 넘는다. 사신이 되어 조선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기도(箕都, 평양) 방백(方伯) 주형선(周衡善)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주운화와 혼인한다. 사실 월경 화소나 중국인과 한국인의 결연이 낯선 것은 아니다. 월경은 <최척전>과 <김영철전> 등에서도 사용했던 서사들이다.²³⁾ 중국과 조선인의 혼인도 완전히 새롭다고 하기는 어렵다. <최척전>의 최척과 <김영철전>의 김영철도 중국에 머무는 동안 중국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도 두었기 때문이다.²⁴⁾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월경 화소가 흥미로운 것은 기존의 형식을 가져오며 조선후기 서사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을 첨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나라 우승상 임홍과 조선 방백의 딸 주운화 사이에 태어난 아들 임자명이 임홍 집안의 적장자가 된다는 것이다. 임홍은 홀로 명나라로 돌아간 후, 황제의 사훈에 의해 새로이 설씨와 혼인하지만, 그 사이에

지낸다.

23) <최척전>과 <김영철전>은 전란으로 인해 부득이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의 이야기를 그렸다.

24) <주생전>과 <위경천전>도 임진왜란을 시대배경으로 하고, 조선에 파병 와 있는 중국인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주생전>과 <위경천전>처럼 중국인이 조선에 온 경우는 혼인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월경화소가 지닌 독특함을 말할 수도 있다.

서 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하고²⁵⁾ 죽는다. 결과적으로 조선 부인에게서 태어난 임자명이 명나라 우승상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가 된다. 설씨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임자명은 가문의 승계자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많은 가문소설이 여러 형제를 두어 다양한 계후갈등을 사건화하는 것과 달리,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임자명을 독자로 설정함으로써 어떠한 갈등도 없이, 오히려 위계상 정부인에 해당하는 설씨의 초대와 환영을 받으며 당당하게 그가 임씨 가문의 주인이 되게 하였다. 이것은 순수한 혈통을 중시하는 일반적 가문소설의 서사문법에서 벗어나기에 새롭다고 할 만하다.

두 번째는 신화적 인수교혼(人獸交婚) 화소의 차용이다. 임홍과 주운화 사이에서 태어나 임씨 가문의 으뜸 어른이 된 임자명은 세 명의 부인에게서 각각 3남 2녀, 2남 2녀, 5남 5녀를 둔다. 이들은 모두 뛰어난 자질을 지녀 가문은 영화를 누린다.²⁶⁾ 이렇게 가문의 완성을 이룬 시점에서 임자명은 중병이 들어, 산천을 유람하며 조병(調病)한다. 유람 중 만난 소년의 인도로 기린산(麒麟山) 추월동(秋月洞)에서 정공을 만난다.²⁷⁾ 정공은 이전 임금인 건문제 때 승의랑(承議郎)²⁸⁾을 지내다, 영락제가 정란을 통해 황위에 오른 후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한 인물이다.²⁹⁾ 정공은 임자명

25) <임상국부자삼취기>, 27쪽, “相國引坐於傍嘆曰, 此必仙女謫降, 我則罪惡甚重, 膝下無一男女, 聞東國夫人生男, 而是未得見, 豈不恨歎, 雖近猥濫, 我有一言, 兄勿笑焉, 我之東國子子明, 時雖未見, 必有仁人君子之人也. 他日入來之後, 欲結晉秦之好, 兄意如何?”

26) <임상국부자삼취기>, 76쪽, “魏氏生三男二女, 鄭氏生二男二女, 慶氏生五男五女, 文章鉅筆, 萃於一家.”

27) 원문에는 ‘少年曰, 我則前朝鄭□之子’(78쪽)라고 하여, 이름 부분을 일부러 비워두었다.

28) 원문은 前朝承議郎으로 표기되어 있다. 전조(前朝)는 일반적으로 이전 왕조를 뜻하나, 여기서는 명나라 제2대 건문제 치세기간을 지시하고 있다. 승의랑은 고려부터 시작되어 조선까지 존재했던 정6품 문반직이다.

29) <임상국부자삼취기>, 78면, “家君曾事建文皇帝, 今上靖亂即位之初, 家君棄位隱

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그의 병을 치유할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아들을 화하(花下) 청려(靑藜) 선생에게 보내 ‘창구(蒼狗)’를 빌려오게 한다. 그것과 친압(親狎)하면 만병이 낫는다는 것이다.³⁰⁾ ‘창구’는 황제(黃帝) 때 태어난 것으로서, 지식이 있고 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 신성한 동물이다. 신성한 동물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수교혼은 인물의 신이성을 보장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기에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상국부자삼취기>는 기존의 인수교혼 모티프를 차용하며, 다시 전복의 변주를 시도한다. 당시 문명권의 중심인 명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교혼한 신성한 동물을 ‘창구’ 즉 푸른 빛깔 도는 ‘개’로 설정한 것이다. 신화시대라면 개와 인간의 교혼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동양의 고대 신화에는 제곡의 딸이 반호라는 개와 교혼하였다는 내용도 보인다.³¹⁾ 제곡 고신씨가 오랑캐 적장의 목을 베어오는 이에게 공주를 아내로 삼게 하겠다고 선포했는데, 마침 왕이 기르던 반호(盤瓠)라는 개가 적장의 목을 가져온 것이다. 제곡과 신하들은 반호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주와의 혼인을 주저했으나, 공주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며 자진하여 반호와 혼인을 했다는 이야기이다.³²⁾ 제곡은 중화를 대표하는 신(神) 황제(黃帝)의 혈통이기에, 신화시대에 제곡의 딸과 반호의 교혼은 신성성을 담보한 서사였다.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작가도 이러한 신화를 의식하여 ‘창구’를

居此山，更不出世，家君之年，已過百歲，結廬於越山，只以一童子侍側而已。”

30) <임상국부자삼취기>, 80면, “老人謂丞相曰，世人必以此爲怪，而但此物能治相公之病矣。蓋此物在昔黃帝時所生之物也。頗有知識，能治如此之病，相公一親此物，則萬病自差矣。”

31) 제곡은 고신씨라고 불리며, 제요와 설과 후직의 조상이자 은(殷) 왕조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또 서방의 신 소호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정재서, 『동양신화』, 김영사, 2010, 107~288쪽.

32) 위의 책, 288~290쪽.

황제 때 태어난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창구’의 신성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문제는 신화시대와는 다른 조선후기의 문화 권력 체계에서, 개와 인간의 교혼은 허용보다는 금기에 가까운 상상이었다는 점이다. <임상국 부자삼취기>와 동시기에 향유된 ‘오랑캐’ 설화나 ‘개와 동침한 여자’ 계열 설화를 보면, 개와의 교혼을 부정적이고 조롱 섞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당시에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을 차용하여 주인공과 개의 교혼을 서사화한 것이다. 이것은 인수교혼 화소가 환기하는 신성성에 새로운 균열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인수교혼 차용이 만든 균열은 수조신화(獸祖神話)와의 결합으로 심화된다. 수조신화는 동물을 조상으로 삼는 시조신화를 가리킨다. 작가는 임자명과 창구가 교혼한 결과로 태어난 인물이 조선으로 건너가 임씨의 시조가 되도록 하였다. 병든 임자명은 정공의 말에 따라 ‘창구[백구]’와³³⁾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후일 임자명을 닮은 임산추가 찾아와 자신이 그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창구의 소생인 것이다. 명나라 승상으로 세인의 존경을 받는 임자명이 ‘창구’ 즉 개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흔하지 않지만,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파격이라 할 만하다. 뿐만 아니다. 이 소설이 독자를 더욱 긴장시키는 것은 그 창구의 아들이 조선 명문가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설정이다. 작품은 결말부에서 임자명이 임산추를 조선으로 보내 외가인 주운화의 집안을 잇게 했고, 조선에 간 임산추가 무공을 세워 벼슬에 오르고 자손도 많이 낳아 중국에는 조선 임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한다. 다수의 한국형 수조신화가 용(창녕조씨)이나 잉어(충주 어씨) 혹은 구렁이(견씨) 등을 시조로 삼는 것에³⁴⁾

33) 처음 화하 청려노인에게 청할 때는 ‘창구’라 했고, 이후에는 ‘백구’라 했다. 여기서는 이 글에서는 처음 지칭한 창구를 대표 호칭으로 삼는다.

34) 서해숙, 『성씨시조신화의 전승과 분포 그리고 문화권역』, 『남도민속연구』 19, 2009,

반하여, ‘오랑개’의 시조를 조롱할 때 사용했던 ‘개’를 시조로 서사화한다는 것은 이 작품의 상상력이 가져오는 균열의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임상국부자삼취기>는 기존의 화소와 구조를 반복적으로 차용하고 변주하며 하나의 이야기로 조합해 낸 작품이다. 작품 전체가 하나의 패러디인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시도하는 패러디에는 두 가지 시선이 교차, 대립, 조정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이 작품의 패러디를 유폐하지만은 않게 바라보는 독자의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독자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이러한 패러디를 만들 수밖에 없는 창작집단의 시선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작품이 시도하는 변주들은 발칙하다.³⁵⁾ 처음에는 익숙한 서사의 틀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미묘한 비틀기를 통해 독자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낯설게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가문소설의 투식인 삼대 구조와 결연담, 시조설화와 수조신화, 월경 화소 등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서사들을 빌려와서, 궁극적으로는 문명국 귀족 가문을 동이족 후손으로 잊게 하고, 조선의 명문가를 창구의 자손으로 계승하게 하였다. 이것은 당시 문화 권력이 권장하는 상상력의 위계를 흐트러뜨리는 ‘발칙한’ 일이다. 독자들은 이 작품의 발칙함을 기특하다고 여기기보다 조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금기에 다가가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독자들이 이 작품의 상상력을 발칙하고 불쾌하고 우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명나라 승상이 조선의 아내와 자식을 잊지 못하는 사연에 대해 작가는 황제의 입을 빌려 독자의 목소리를 전한다. 영락제는 조선 여성 주운화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임흥에게 주

104~105쪽.

35) 패러디는 원래 원본을 희화하기 위해 모방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원본을 파괴하는 충격을 수반한다. 원본의 파괴는 원본이 사실로서의 진실이 아니라 제도와 규범이 만든 이차적 구성물임을 폭로하는 전복이다.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 젠더트리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1~9쪽.

문화가 삼종지의(三從之義) 중 종부(從夫)의 의리를 따르지 않았으니, 중국에 들어오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또한 주운화는 중국에서 만리나 떨어진 외역에 있기에 소식을 통하기 어려우니, 홀아비로 살지 않도록 마땅한 혼처를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설씨를 중매한다.³⁶⁾ 임흥은 주운화가 무남독녀로 부모를 봉양해야 하기에 부모 생전에는 중국에 들어오기 어렵다고 했으나, 영락제에게 만리외역 여인의 효는 명나라 남편을 따르지 않는 쾌심한 부덕(婦德)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여인은 중국에 들어오게 할 필요가 없다는 황제의 말은 주운화가 중국의 경계에 진입할 자격이 없다는 뜻과 같다. 이것은 조선 여인을 명나라 고관의 정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흔쾌하게 여기지 않는 시선들이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가는 창구와의 친압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창구와 친압을 해야 만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정옹의 말에 대해 임흥 자신의 입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창구가 낳은 아들 산추가 찾아와 임자명과 창구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러한 기담(奇談)을 서로 전하며 비웃었다. 이로 인해 임자명은 무척이나 괴로워했다. 그리하여 산추를 동국에 보내 외조부모의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을 방도로 삼은 것이다.³⁷⁾ 이것은 모두 당시 독자들의 시선을 반영한다. 그런데 작가는 불편해하는 독자의 시선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작품의 사이사이에 그것을 삽입하여 다시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사전략은 작가가 독자에게 자신이 독자의 비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호소하는

36) <임상국부자삼취기>, 25~30쪽.

37) <임상국부자삼취기>, 81~82쪽.

것으로 보인다.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작품을 써야했던 것은 이 작품이 작가에게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 그래서 치열하게 완성해야 하는 자기서사라는 호소인 것이다.

이처럼 <임상국부자삼취기>는 다양한 서사양식의 조합을 발칙한 패러디로 바라보는 독자의 시선과 그러한 시선을 알면서도 치열하게 자기서사를 구성해야 했던 작가의 시선이 교차되는 사이지점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작품이 완성하고자 한 자기서사는 작가 개인의 자기서사라기보다 작가가 속한 집단의 자기서사이다. 집단의 자기서사는 그 집단의 내력과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만약 사회구성원 전반이 집단의 자기서사를 따르지 않게 바라본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한 시선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것에 대응하는 논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패러디를 대응논리로 삼았다. 작가가 속한 특정 집단의 자기서사를 그 집단이 속한 더 큰 사회의 자기서사에 편입하기 위해서, 작가는 그 사회가 익숙하게 여기는 서사들을 그러모은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신들의 서사를 넣어 변주를 꾀했다. 때문에 독자들은 단순한 모방작일 것이라 생각했던, 그래서 그저그런 가문소설의 아류라고 생각했던 작품에서 뜻밖의 긴장과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어떠한 대응논리로 자기서사를 구축하는가? 이 작품의 자기서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도하는가?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3. 몸 섞기를 통한 육체의 차이 지우기

: 반화반이(半華半夷)와 반이반적(半夷半狄)

<임상국부자삼취기>는 기존의 소설투식을 모아서 기우며, 특별한 갈

등과 드라마틱한 해결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소 단조로운 작품이나 18세기 이후 등장하는 아류작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작가는 이야기꾼으로서의 기양(技養) 때문에 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자기서사를 구성해 보여야 하는 당위와 목적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적 글쓰기 방식으로 담기 어려운 내용이기애 소설 양식을 택한 것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소설들을 모아, 그 사이에 자기서사를 끼워 넣은 것이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해명은 바로 작품 안에 존재한다. 이 작품이 반복하는 차용과 변주에서, 왜 이 작품이 단순한 모방이나 아류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주류적 상상력의 위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위반하고 있다. 조선 여인의 아들로 명나라 최고 가문을 잇게 한 것, 창구의 아들로 조선 명문가의 시조가 되게 한 것. 이 두 가지는 작가가 다양한 서사들의 조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지점이다. 이 지점의 핵심은 ‘몸 섞기’이다.

몸 섞기의 서사는 원래 신화시대의 대표적 이야기들이었다. 신은 인간이나 동물과 몸을 섞어 반신반인 혹은 반신반수를 낳았고, 동물도 인간과 몸을 섞어 반인반수를 낳았다. 몸섞기로 태어난 이들의 ‘몸 형상’은 부정과 불순이 아닌 경외와 신성의 표지였다. 이것은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창구’도 마찬가지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창구’가 황제 때 태어났다고 했는데, 이러한 창구와 임자명의 교혼에는 서사적 상상력의 계보가 존재한다. 첫번째 원형은 중국의 황제 신화이다. 동양의 고대 신화 중에는 ‘황제의 후손 농명(弄明)이 한 쌍의 흰 개를 낳았는데, 그들이 퍼뜨린 자손이 견융국(犬戎國)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³⁸⁾ 동양 최고(最古)의 신화서 『산해경』은 『해경(海經)』, 『대황북경(大荒北經)』, 『대황』

38) 정재서(2010), 앞의 책, 408쪽.

의 한가운데에 용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순수가 이곳으로 들어온다. 견용이라는 사람이 있다. 황제가 묘룡을 낳고 묘룡이 용오를 낳고 용오가 농명을 낳고 농명이 흰 개를 낳았는데, 흰 개는 암수가 있다. 이것이 견용으로, 육식을 한다.”³⁹⁾라고 하여 황제에서 시작된 견용족의 구체적 계보를 적고 있다. 견용국 사람들은 황제라는 최고신의 후손이므로 반신반수이기도 하고, 개의 머리에 인간의 몸을 하고 있어 반인반수이기도 하다. 그들은 인간과 교혼을 하는데, 아름다운 부인이 반인반수의 남편을 지극히 공경하여 임금처럼 대하며, 무릎을 꿇고 음식을 바쳤다고 한다. 견용족 이야기는 개를 시조로 삼는 것을 성스럽게 바라보는 동양의 대표적 상상력인 것이다.⁴⁰⁾

견용국과 관련한 또 다른 신화의 계보는 앞서 언급한 고신씨 제국과 연관이 있다.⁴¹⁾ 제국도 농명처럼 황제의 후손으로, 종종 황제와 동일시되기도 한다.⁴²⁾ 제국 고신씨가 오랑개 적장의 목을 베어온 개 반호(盤瓠)와 자신의 딸을 혼인시킨 이야기는 앞서 언급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견용국을 이루었다.⁴³⁾ 혼인과정에서 제국과 신하들은 ‘개’라는 이유로 반호와 공주의 혼인을 반대했는데, 이것은 인간과 개의 교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명론적 시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아직은 신화적 세계관이 우세하였기에 신의를 거론하며 반호와 결혼하겠

39) 정재서 역주, 『산해경』, 민음사, 2007, 324쪽.

40) 인간과 개의 교혼을 신성시하는 사유의 서사화가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이것은 황제로 상징되는 중화와 견용으로 묘사되는 이민족의 구별과 차이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사유이다. 중화주의가 극단화되면서 동일한 서사가 이민족을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41) 정재서(2010), 앞의 책, 288쪽.

42) 일반적으로 제국은 황제의 손자로 알려져 있기에 이를 혼동하여 제국과 황제를 동일시하는 전승이 발생한 것이다.

43) 정재서(2010), 앞의 책, 288~290쪽.

다고 한 공주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황제의 자손 계보가 실린 『산해경』과 제곡과 반호의 이야기가 실린 『수신기』와 등은 조선 후기에 널리 읽혔던 것이기에 이러한 신화적 사유가 <임상국부자삼취기>에 나오는 인간과 창구의 교혼 서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견용형 몸쉬기 서사의 원형적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다. 신화에 나오는 견용족은 황제와 제곡의 후손으로 신이성을 담지한 종족이었다. 신화시대에는 자연과 인간의 결합을 신성성의 증표로 여기는 세계관이 허용되었기에, 견용을 시조로 하는 민족들이 당당히 자기의 존엄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조(獸祖)를 당당히 드러내어도 되는, 서사적 상상력의 상호 존중 시대에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배타적 중화주의가 형성되고 중화와 구분되는 이민족에 대한 폄하의 시선이 등장하면서, 수조신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예전과 달라졌다. 수조에 대한 상상력에도 위계와 차별이 생긴 것이다. 그 결과 용과 같은 중화적 수조는 더욱 높아지고, 개와 같은 변방의 수조는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간과 개의 교혼 서사에 대한 원형적 기억은 무의식적 상상력으로 억압되고, 후대에 만들어진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져 유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대의 신화서 『산해경』과 『수신기』에서 황제의 후손으로 등장했던 견용이 당나라의 『예문유취』에 오면 중화의 신 황제와 혈연관계가 지워진 오랑캐가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문유취』에서는 견용의 시조였던 반호가 오랑캐 견용을 무찌르는 것으로 변주된다. 그리고 반호는 황제의 후손인 공주를 아내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 미녀를 아내로 얻고 자손을 낳는다. 반호와 미녀의 후손이 구봉씨이고, 이들이 후에 남만이 되었다는 것이다.⁴⁴⁾

44) 『예문유취(藝文類聚)』 권94 ‘구(狗)’ 조.

견용형 몸섞기에 대한 배타적 인식은 중화주의를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수용한 조선후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의 사유 속에는 두 개의 견용국이 존재했던 것 같다. 하나는 앞서 말한 신화서 속 나라인 견용국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국경을 오가는 몽고국이다. 『계산기정』 『몽고관(蒙古館)』에서 “몽고인은 본래 견용(犬戎)”이었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몽고가 견용족이라는 것은 용의 자손인 한족(漢族)이 아니라는 ‘경계 긋기’이다. 이것은 『예문유취』에서 ‘남만은 구봉의 자손이다’라고 말했던 인식과 연결된다. 이러한 배타적 구분, 차별적 위계에 대한 연표에는 그들을 야만시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일정부분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⁴⁶⁾ 이러한 편하는 실제 몽고국의 시조신화를 근거로 삼은 것이다. 견용으로 상징되는 ‘개[창구]’는 몽고의 시조설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몽고의 역사와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원조비사(元朝秘史)』에는 몽고의 시조신화인 ‘창랑

45) 『계산기정』 제3권, 『관사에 머물대(留館)』, 계해년(1803, 순조 3) 12월 27일(무자), “몽고인은 본래 견용(犬戎)이었었는데, 부락(部落)이 매우 강성(強盛)하므로 황제가 그들과 혼인을 맺게 되었고, 그 번왕(番王)으로서 황성(皇城)에 거주하는 자는 관사가 한 채뿐이 아니었다. 그중 한 채는 옥하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과는 언어가 더욱 통하지 않았다. 그들이 입은 갓옷은 지저분하고 그들 얼굴에는 사나운 기가 흘렀으며, 그들은 광대뼈가 넓은 것이 청나라 사람과는 달랐다. 그리고 그들은 추위도 겁내지 않고 옷을 벗어서 이를 잡는데 잡으면 곧 씹어먹는다고 한다. 그들 부녀로서 따라와 관사에 거주하는 자는 소변을 볼 때에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들으니, 의복 제도는 오랑캐 여자와 같고, 머리털을 묶는 법은 우리나라 풍속과 같다 한다. 이날 경박(景博) 등 여러 사람을 따라서 그들이 사는 데를 찾아갔는데, 사나운 개에게 저지당하였다. 낙타는 몽고의 소산이므로 그를 잘 부리는 자는 역시 몽고 사람이다. 날마다 석탄(石炭)을 실어 나르느라 길에 줄지어 끊이지 않았다.” 고전번역원.

46) 정재서(2010), 위의 책, 408~409쪽; 205쪽, “이러한 신화들은 훗날 중화주의가 성립되면서 주변 민족을 야만시하고 경멸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견용, 남만, 북적 등은 모두 주변 민족을 표현하는 말들인데, 이들 어휘에는 개라든가 벌레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주변 민족을 동물과 동일시하는 사고의 이면에는 이들 민족의 시조 탄생 신화에 대한 왜곡과 편견이 깔려 있는 것이다.”

백록(蒼狼白鹿)’ 이야기가 실려 있다.⁴⁷⁾ 몽고의 건국자인 칭기즈한의 시조가 “지고한 하늘의 축복으로 태어난 창랑과 그의 아내 백록”이라는 것이다.⁴⁸⁾ 이 기록은 『몽고원류(蒙古源流)』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몽고원류』는 성해응과 김정희 등도 구해 읽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⁴⁹⁾ 조선후기 식자층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몽고의 신화는 돌궐의 빈랑(北狼) 신화와 관련이 있다.⁵⁰⁾ 대표적 돌궐 시조 신화는 『주서(周書)』 「돌궐전(突厥傳)」에 나온다. 내용의 대략은 전쟁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족속이 죽은 후 버려진 아이를 암이리(北狼)가 돌보아 낳게 하고, 이후 암이리와 그 아이가 교합하여 자손을 낳아 돌궐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⁵¹⁾ 돌궐과 몽고의 민간 설화에서는 자기들의 시조신을 높이기 위해 랑(狼)을 휘(諱)하여 구(狗)로 불렀다고 한다. 창랑을 창구(蒼狗)로 부른 것이다. 이러한 높임은 북방 계열의 자부심을 드러낸다. 이들 신화는 창구와 인간의 몸 섞기를 신성시 여겼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창구와 인간의 몸 섞기를 불순하고 부정하고 천한 금기로 바라보는 시선이 등장한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대등하게 존중하고 존중받던 창구형 시조신화가 후대 중화문화권에서는 창구형 신화를 지닌 민족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47) 장정해, 「중국 소수민족의 수조신화 비교 연구」, 『중국어문학지』 17, 2005, 63쪽.

48) 유원수 역, 『몽골비사(元祖秘史)』, 사계절 2004, 23~27쪽.

49) 김정희, 『완당전집』 제1권 「천축고」·제8권 「잡지」; 성해응,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외집61 「五印度考訛」, 고전번역원.

50) 진인각, 「彰所之論與蒙古源流」, 『陳寅恪先生文集』, 臺北:里人書局, 1981. 몽골의 신화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돌궐신화 차용설을 지지한다고 한다. 장정해, 앞의 논문, 63쪽 재인용.

51) <임상국부자삼취>의 창구에는 몽골의 창랑[창구]과 돌궐의 빈랑(北狼)의 이미지가 융합되어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임상국부자삼취기>는 ‘발칙하게’ 창랑과 인간의 몸 섞기 서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패러디적 변주를 통해 보여준 ‘몸 섞기’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중국과 조선, 인간과 동물이 몸을 섞은 결과로 태어난 인물이 가문을 이어간다는 상상은 문명과 야만, 중화와동이, 인간과 동물, 소중화와 오랑캐라는 육체의 구분과 차이를 해체하는 은유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명의 핵심인 명나라의 고관 집안이 알고 보면 자신들이 동이라고 폄하했던 조선과의 혼혈로 이어진다고 했으니, 이러한 몸 섞기는 명나라 중심의 중화주의를 해체하려는 상상으로 읽힐 수 있다. 조선의 명문가도 사실은 창구의 자손이라고 했으니, 이러한 몸 섞기는 명나라에 의해 동으로 폄하되는 것에 저항하기는커녕 망한 명나라의 시체를 떠받들고, 자신도 이족이면서 ‘창구’로 상징되는 또 다른 이족을 비웃고 조롱하는,⁵²⁾ 조선의 소중화주의를 겨냥한 상상력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상상은 당시 문명권의 절대적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있던 중화주의가 사실은 만들어진 순혈주의라고 폭로하는 것과 같다. 중화주의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 없는 ‘순수’라는 관념에 강박된 사유이기에,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것과 섞이고 그것에 감염되는 것을 부정하게 바라본다. 이 작품의 작가는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도 비난을 각오하고 폭로를 시도한 것이다.

이 작품의 폭로는 ‘경계적 몸’을 지닌 작가가 자신의 육체에 새겨진 차이와 차별을 재고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몸짓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이 그리고 있는 몸 섞기는 금기에 가까운 상상으로, 이러한 금기는 18세기 이후에는 민간 설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었다. 그럼에도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작가는 이러한 금기를 깨고 반화반이(半華半夷)와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상상력을 전개했다. 여

52) 또 다른 이적은 북방계 이민족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기서의 반인반수는 신성성을 환기하는 신화시대의 상상력과 다르다. 이것은 인(人)이 동이계 혼혈이고 수(獸)가 북방계 수조신인 창구라는 점에서 반이반적(半夷半狄)을 연상하는 상상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상력은 작가가 대표하는 집단이 이중의 몸 섞기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말해준다. 작가는 육체의 위계에서 차별과 금기의 대상이 되는 ‘경계적 몸’을 지닌 사람 중 하나인 것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의 몸 섞기 서사는 육체에 새겨진 위계와 차별의 경계를 지우는 행위이다. 중국과 조선, 인간과 동물의 몸을 섞는 이중의 서사는 ‘경계적 몸’을 지닌 작가가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구현하고 구축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그가 선택한 몸 섞기 서사는 중화와 동이, 소중화와 북적 계열로 구분되는 ‘육체’들을 섞는 것이다. 중화와 동이, 소중화와 북적 계열의 몸에는 고하(高下)와 귀천(貴賤)과 선악(善惡)의 경계가 그어져 있다. 이것들을 섞는 것은 육체 간의 경계를 지우는 일이다. 육체의 경계 지우기는 누가 소망하는가? 그것은 바로 경계인이다. ‘고하와 귀천과 선악’의 경계에 있는 몸은 ‘감염’을 부정시키는 사회 문화적 풍토 속에서 ‘하(下)와 천(賤)과 악(惡)’ 쪽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사회는 경계인들의 자기서사에 존재했던 과거의 기억을 공평하고 균형 있게 기억해 주지 않는다. 경험했어도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준수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계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서사 안에 존재했던, 그러나 이제는 드러내는 것이 금지된 서사를 끌어낸 것이다. 이것은 경계인이 자신들을 강하게 구속하는 ‘하(下)와 천(賤)과 악(惡)’의 편견을 벗겨 내기 위해, 자신들이 ‘고(高)와 귀(貴)와 선(善)’과의 교혼 서사를 지니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들이 구축하는 자기서사는 단순한 희작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서사가 된다. 이들에게 ‘경계의 해체와 경계 지우기’는 자기 집단의 구원을 위한 노력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시도한 경계의 해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중화와 소중화 중심의 서사 체계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육체의 경계 지우기가 중화주의적 서사 위계의 해체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화반이(半華半夷)는 임산추의 피가 중국과 조선 모두의 명문가 혈통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서 만족하며, 반이반적(半夷半狄)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한 ‘창구’계 육체를 지녔지만 적어도 부계는 중화와 소중화의 교혼으로 태어난 귀인(貴人)임을 역설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품의 서사가 임산추와 그의 후손을 창구의 자식으로만 보려는 외부의 시선을 거두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보면 작가는 경계인의 자기서사를 중화주의적 서사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듯하다. 이 지점을 이 작품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지점이 작가의 핵심 고뇌와 작품 창작의도를 선명히 해준다. 즉 작가층은 중국과 창구계 이민족과 조선의 몸을 아우른 존재로서, 오랜 시간 조선에서 지냈어도 조선의 질서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 처지를 근심하고,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이 작품을 지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4. 마치며: 원나라 계열 향화인의 자기서사 구축 가능성

창구의 자손이 조선 임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임상국부자삼취기>의 결말은 이 작품을 영사소설(影射小說)로 바라보게 할 여지가 없지 않다. 영사(影射)란 말은 원래 그림자를 쏜다는 뜻인데, 인물을 에둘러 해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⁵³⁾ 노신은 『중국소설사략』에서 “소설의 인물들은 모

53) 사(射, 석)가 사람을 에둘러 해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화살을 쏜다는 어석과도

두 영사의 대상이다.”⁵⁴⁾라고 하여, 영사를 문학의 평어로 사용했다. 영사 소설의 기원은 당 전기 『보강총백원전』으로 이야기 된다.⁵⁵⁾ 한국의 경우, 최치원을 금돼지의 자식으로 설정한 <최고운전>이 이에 해당한다.⁵⁶⁾ <임상국부자삼취기>를 영사소설로 읽으면, 이 작품은 임산추라가 개의 혈통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은근히 그를 욕보이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개와의 교혼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시대 배경 속에서⁵⁷⁾ 창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상국부자삼취기>는 단순히 영사소설로 읽기에 난해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영사소설은 특정한 개인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데 반해, 이 작품은 한 가문 전체를 향해 ‘그림자를 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작품이 임산추를 비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임자명과 창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하면 된다. 그런데 임흥과 주운화의 혼인을 시작으로 3대에 걸친 이중의 몸섞기를 보여준 것은 임산추나 그를 시조로 하는 조선 임씨 가문을 조롱하기 위해 창작했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오히

관련이 있지만, 고대 신화서 『산해경』에 나오는 역(蜮, 물여우)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蜮)은 모래를 머금고 있다가 사람에게 쏘는데, 여기에 맞은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된다고 한다. 정재서 역주(2007), 앞의 책, 300쪽.

54) 노신, 『중국소설사략』, 제28편, “書中人物, 凡無不有所影射.”

55) 이 작품은 구양순의 어머니가 흰 원숭이에게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후에 원숭이를 닮은 구양순을 낳았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구양순을 욕보이기 위해 지은 것이라고 말한다. 즉 서사적 창작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다. 정재서, 『사라진 신들과의 교신을 위하여』, 문학동네, 2007, 195쪽.

56) <최고운전>의 금돼지 서사도 최치원이 결국은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이방인이라는 표지가 되고 있다. 김수연, 『<최고운전>의 ‘이방인 서사’와 고전텍스트 읽기 교육』, 『문학치료연구』 23, 2012, 109~134쪽. 때문에 신이성보다는 영사적 성격이 부각되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57) 작품에서도 이러한 조롱의 시선이 노골화된다. 임산추가 임자명을 찾아왔을 때, 그가 창구의 아들임이 알려지자 주위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이다.

려 이 작품은 영사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자기가문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전달한다. 이것은 자기 가문에 대한 타인의 ‘영사적 시선’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기서사 안에서 발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주 또한 작가가 ‘창구’와 연결된 자기서사를 지닌 사람이며, 자신의 서사를 부정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음을 나타낸다.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조롱을 적극 인정하고 그것에 대답하는 서사를 창작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구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조선인의 결합, 조중(朝中) 혼혈 아들과 창구의 결합, 인구(人狗) 혼혈 아들의 조선인 되기로 이어지는 몸 섞기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 작가는 어떤 성격의 계층과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 역사상 중국과 조선과 창구계열 민족의 혈통이 결합된 조선인은 누가 있을까? 자신의 몸에 대한 세상의 조롱을 체감하면서 그것을 부분으로 삼는 새로운 자기서사와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조선의 질서에 동화되기를 바랐던 이들은 누구일까? 조선에 들어와 산 지 오래되었으나,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향화인’이 있다. ‘향화(向化)’란 ‘향국투화(向國投化)’의 준말로, 일반적으로는 귀화한 야인이나 왜인을 가리킨다. 이국에서 조선에 건너온 이들을 ‘향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적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소중화인 조선의 덕에 감화되었다고 생각하는 화이관을 반영한 것이다.⁵⁸⁾ 그런데 향화인 중에는 야인과 왜인 외에 원나라 계열의 사람들도 존재한다. 원명교체기를 전후로 고려와 조선으로 건너온 중국인들이 그들이다.⁵⁹⁾ 이들은 야인과 왜인들과 달리 상당한 학문적 소

58) 이옥빈, 『조선시기 북방계 향화인의 구성과 존재양상-1609년 울산호적을 중심으로』, 울산대 석사논문, 2015, 1쪽.

59) 백옥경, 『조선전기에 활동한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16, 2009, 199~231쪽에서 원나라 이주민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양을 갖춘 인물들이다. 이들은 한반도로 이주해서 과거에 합격하고, 정치, 군사, 외교 면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고려말 대원외교나 조선초 대명외교에서 활약했다. 이로 인해 특히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을 우대했는데, 다른 향화인은 조선의 천인 계층과 혼인 관계를 맺게 한 것과⁶⁰⁾ 달리 원나라 계열 향화인은 양반 가문과 혼인을 맺도록 주선했다.⁶¹⁾ 그럼에도 이들은 3대가 지나도 완전히 조선인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조정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외국인으로 대하는 시선들로 인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이 사향(賜鄕)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은⁶²⁾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하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내내 원나라 계열의 향화인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그들이 일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⁶³⁾ 원나라 계열 향화인은 창구(蒼狗) 계열 시조신화를 지닌 사람들이다. 이옥빈은 ‘대원(大元)’이라는 본관을 사용하는 원나라 계열 향화인들이 조선전기부터 17세기 초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조선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살아왔다고 했다. 명나라 유민과 여진계 야인 및 왜인 향화인에 비해 원나라 계열 향화인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적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정해 볼 때, 원나라 계열 향화인들은 17세기

60) 백옥경, 『조선전기 향화인에 대한 혼인규정과 여성』, 『역사학연구』 34, 2008, 41~69쪽에서 야인과 왜인 향화인의 혼인을 자세히 다루었다. 원나라 향화인의 혼인은 백옥경, 위의 논문.

61) 백옥경(2009), 앞의 논문, 225쪽.

62) 『태종실록』, 6년 12월 9일 기사 「원나라 백안의 자손 우군 동지총제 이현에게 임주로 본향을 삼게 하다」, “우군 동지총제 이현(李玄)에게 임주(林州)로 본향을 삼게 하였다. 이현이 상언하기를, 신의 증조 대도로 총관 백안은 지원(至元) 병술년에 황제의 이모[皇舅] 제국대장 공주를 받들고 왔는데, 자손 대대로 내려오면서 국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지금껏 본국에 적(籍)을 두지 못하였으니, 바라건대, 다른 귀화인의 예에 의하여 사향(賜鄕)해 주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고전번역원.

63) 이옥빈, 앞의 논문, 6~17쪽.

초까지도 여전히 완전한 조선인으로 동화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 같다. 그들이 별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정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향화인 사회에 해체의 조짐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부득이 조선인 사회에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⁶⁴⁾ 중국에서 넘어왔으나 17세기까지, 자의든 타의든 ‘대원’이라는 본관을 사 용해야 했던 원나라 계열의 향화인들이 소중화 조선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창구 계열의 민족임을 인정하면서 조선이 허용하는 가문으로 조상의 내력을 조작하고 윤색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다른 가문들처럼 그들도 족보와 시조 혹은 중시조의 설화를 지어야 했을 것이다. 이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가, 조선으로 이주한 중시조가 창구로 상징되는 원나라 계열임을 감출 수는 없지만, 그의 이전 시조는 황제와 연결되는 중화의 자손이며, 더군다나 모계는 소중화 조선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일 터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이러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원나라 계열 향화인 집단의 자기서사 중 하나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원나라 계열 향화인의 대표 성씨로서 조선의 명문이 된 임씨 가문을 선택하여⁶⁵⁾ 그들의 권위를 빌리고,⁶⁶⁾ 그 가문의 이주 서사에 자신들의 창구 계열 시조설화를 삽입하는 방식을 통해, 조선이 금기시하는 자신들의 육체를 조선 사회에서 허용하는 육체로 서사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64) 위의 논문, 22~29쪽.

65) 고려말 이주하여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역할했던 임언충은 원나라 계열 향화인의 대표 인물이다. 백옥경(2009), 앞의 논문, 207쪽.

66) 임씨는 고려 때 귀화한 중국계 가문이다. 임씨 중 가장 큰 계파인 장흥 임씨의 시조는 황제(黃帝)의 여덟 번째 아들인 우양(禹陽)이다. 성씨이야기 편찬실, 『장흥 임씨 이야기』, 울린피플스토리, 2014, 24쪽.

참고문헌

버클리본 <임상국부자삼취기>.

『태종실록』, 고전번역원.

『계산기정』, 고전번역원.

『완당전집』, 고전번역원.

『연경재전집』, 고전번역원.

임석재, 『임석재 전집4-함경북도편』.

강진옥, 「구전설화 이물교혼 모티브 연구」, 『이화여문논집』 11, 1990, 173~203쪽.

고대민족문화연구회 편,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수집 한국고전전목록』, 『간행사』, 2009, 보고서, 3~267쪽.

김수연, 「〈최고운전〉의 ‘이방인 서사’와 고전텍스트 읽기 교육」, 『문학치료연구』 23, 2012, 109~134쪽.

김수연, 「도장과 고소설의 여성인물 상상력」, 『고전여성문학연구』 30, 2015, 33~63쪽.

박일용,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에 나타난 애정모티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35, 2001, 193~233쪽.

백옥경, 「조선전기 향화인에 대한 혼인규정과 여성」, 『역사학연구』 34, 2008, 41~69쪽.

백옥경, 「조선전기에 활동한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16, 2009, 199~231쪽.

서근식, 「조선시대 향화개념에 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37, 2009, 7~31쪽.

서해숙, 「성씨시조신화의 전승과 분포 그리고 문화권역」, 『남도민속연구』 19, 2009, 97~126쪽.

성씨이야기 편찬실, 『장흥 임씨 이야기』, 올림피플스토리, 2014, 3~191쪽.

유원수 역, 『몽골비사(元祖秘史)』, 사계절 2004, 5~515쪽.

이옥빈, 「조선시기 북방계 향화인의 구성과 존재양상-1609년 울산호적을 중심으로」, 『울산대 석사논문』, 2015, 1~38쪽.

장정해, 「중국 소수민족의 수조신화 비교 연구」, 『중국어문화지』 17, 2005, 49~75쪽.

정운채, 「〈춘향가〉에 나타난 두 권력과 그 문화론적 의미」, 『문학치료학의 작품론』, 문학과치료, 2015, 271~285쪽.

정재서 역주, 『산해경』, 민음사, 2007, 5~388쪽.

정재서, 『사라진 신들과의 교신을 위하여』, 문학동네, 2007, 5~303쪽.

정재서, 『이야기 동양신화』, 김영사, 2010, 4~535쪽.

조재현, 「<임상국부자삼취기> 연구-시조설화적 서사구성과 다문화가정을 통한
가문계승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0, 2012, 251~276쪽.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4~484쪽.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 젠더트러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1~109쪽.

ABSTRACT

The Body Narratology

- Deconstructing Division of the Body in the Late Chosŏn Novel

Kim, Soo-youn

There exist a hierarchy and discrimination in imagination according to an era and a society. Certain imagination itself comes to be a taboo. As for the Sujo mythology(獸祖神話) setting an animal as an ancestor in the Chosŏn Dynasty, imagination entering into a sexual relation with a dog and making it an ancestor was an almost taboo. However, in the Sino-Korean novel of the latter Chosŏn Dynasty, 〈任相國父子三娶記〉, a character appears who was born by a sexual relation with a dog and became the progenitor of the Chosŏn nobel family. This work integrates various types of narratives and motives from the ancient mythology to the latter Joseon Dynasty's family novels. Representatives include a motif of border crossing(越境) by one marrying a person from other nation, that of man-animal marriage(人獸交婚) by one having intercourse with an animal and a structure of Youngsa novels(影射小說) criticising certain person. It is a kind of parody.

However, this work tried to play a variation for readers to defamiliarize the existing motif through parody. Unlike the existing works having a border-crossing motif, a biracial son between Chinese envoy and Chosŏn woman was made a successor of a Chinese nobel family. Besides, a dog hardly dealt in a motif of man-animal marriage was set as a partner of human and its son was made a progenitor of a Chosŏn nobel family. Youngsa novels came to aim at the entire family beyond a person with a changed composition. It deconstructed division and difference between civilization and barbarism, Sinocentrism and eastern barbarism, human and animal, petit- Sinocentrism and barbarism. Such a parody is a destruction of taboo and it may be read as

the outrageous to readers. However, creation of this work suggests that authors were people having a body of discrimination and taboo in a physical hierarchy. This work may be read as an effort for people having a tabooed body like 向化人(northern barbarians) of the latter Joseon Dynasty to construct a severe self-epic for a body acceptable in a society.

Key Words <任相國父子三娶記>, man-animal marriage(人獸交婚), parody, self-epic, 向化人(northern barbarians)

논문투고일 : 2016.10.15

심사완료일 : 2016.11. 2

게재확정일 : 2016.11.15